

정부 ‘학점은행제’ 불교학 전공 신설

대학 전공 아니더라도 학사학위 가능

정부가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불교학 전공이 신설됐다. 불교학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교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박경준 동국대 평생교육원장은 지난 11일 “학점은행제교육이 시작된 이래 불교학 전공 신설은 불교계 숙원사업이었다”며 “이웃종교와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지만 폭넓은 인재양성과 새로운 신행문화를 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는 학점은행제교육이 시작된 바로 이듬해인 1999년 신학전공을 개설한데 이어, 2004년 가톨릭 신학전공이 신설돼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기관 정보에 따르면 신학과정은 서울 숭실대를 비롯한 32개 교육기관에서, 가톨릭신학과정은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11개 기관에서 신학 공부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동국대 평생교육원은 2013년 6월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9개 대학의 동의를 받아 학점은행제 불교학 표준교육과정 신설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안했다. 불교학 수강에 관한 수요조사와 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와 설명회,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표준교육과정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동국대 평생교육원은 이번 전공신설로 인재 양성은 물론, 전국 주요사찰의 불교교양대학을 학점은행제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교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의 강의 기회도 확대됐다. 이를 위해 타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나 사찰의 교양대학 등에도 불교학전공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부터 학생을 모집하며, 내년 3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불자와 불교에 관심 있는 성인이 현업과 학습을 병행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기존 학사학위 소지자들의 경우에는 전공 48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불교학전공 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전공은 초기불교, 유식·천태·화엄, 종교학, 한국불교사, 불교명상과 심리치료, 사찰경영과 중무행정, 불교생태학 등 33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140학점)을 충족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35차 한일불교 문화교류

한국 일본 양국 불교 지도자 250여명은 지난 9일부터 12일 까지 일본 규슈 쿠루미시(久留米市) 전도우지(善導寺)에서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열고 불교정신을 통한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왼쪽)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바바 시 쇼겐스님의 선물교환.

▶관련기사 2면

문창극 총리후보 사퇴 여론 확산

실천승가 등 불교단체
정부 지명철회 촉구
NCCK도 자진사퇴 요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이 드러나며 총리후보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정종교에 편향된 종교관과 역사관 등이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할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불교계를 비롯한 이웃종교계도 정부의 총리후보 지명철회와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지난 13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지명철회와 국정운영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상임대표 퇴휴스님을 비롯해 법안·법경·종호·가섭스님 등 회원 스님 14명이 참가한 기자회견에서 실천승가회는 “문창극 총리지명자는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 편향된 이념, 종교관까지 어느 하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천승가회는 “총리지명자의 일제식민지배 정당화 발언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사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총리 지명자를 떠나 친일

파보다 못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천승가회는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등 다양한 인과관계에 의한 역사의 흐름을 본인이 믿는 종교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편협함도 지니고 있다”며 “부적절한 공직자의 임명철회와 현 정부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불교계 가연대 등 4개 불교계 단체도 논평을 내고 총리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성균관 유림대표들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나라의 존엄과 선열을 모독한 문창극은 역사와 민족 앞에 무릎을 꿇어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NCCK)가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8개 기독교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NCCK는 성명에서 “문 후보의 발언은 식민사관에 근거한 비뚤어진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스님)도 16일(6월13일 현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社告

제4회 전국 금강경 강승대회

‘보살상사 실천 근본도량’ 금강선원이 불교신문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의 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 금강경 강승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유일의 이 대회는 대상의 ‘조계종총무원장상’으로 격상(2회), 수행체험수기 부문 신설(3회) 등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대회로 성장해 수행의 대중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4면

■ 일 정 : 2014년 10월 18일(토) 09:00 ~ 18:00
1차(필기: 외워쓰기) 09:00 ~ 10:10
2차(필기: 이해도) 10:30 ~ 11:30
3차(강승) 13:00 ~ 15:00
* 수행체험수기 발표 15:30 ~ 16:30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7:00 ~ 18:00

* 전형료 : 일반 3만원, 학생 무료(학생증 복사본 필수)
* 지원서 다운로드 : 탄허기념박물관(www.tanheo.org), 금강선원(www.geumgang.org)

■ 접수 및 문의처 : 금강선원

- E-mail : keumgang-sw@hanmail.net

- 우 편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82길 11 삼우빌딩 4층 (02)445-8484

■ 시험 유형 및 출제

가: 필기(외워쓰기) 금강경 32문 가운데 지정된 분 필기 (금강선원 발행 “금강경독송집” 기준)

- 한글, 한자 필기(한자로 필기시 가산점 부여)

나: 필기(이해도) - 금강경 내용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지필시험

다: 실기(양승) - 양승 + 음음, 소리의 크기 등

■ 시 상 :

대상(총무원장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체험수기상, 특별상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서울시 강남구 방포대로 14길 13-51, www.tanheo.org)

■ 응시부문 : 강승부문, 수행체험 부문

■ 응시자격 : 일반부: 재가불자(성인부, 노년부)

학생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원서접수 : 2014년 8월 1일(금) ~ 9월 30일(화)

* 수행체험담 모집 : 체험수기 제출(A4 2장)

* 주최: 금강선원, 제4교구본사 월정사, 탄허불교문화재단, BTN 불교TV, 불교신문

* 주관: 금강선원, 탄허기념박물관

■ 제12회 유심작품상 영예의 수상자

4면

■ 화쟁코리아 100일, 무엇을 얻었나

9면

“도난 정보, 신고하세요”

도난문화재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가운데, 조계종이 도난·분실·멸실 정보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해일스님)와 호법부(부장 세영스님)는 ‘도난 정보 자진 신고 안내’ 공고를 통해 “전·현직 사찰 주지는 본인 재직 시 신고 되지 않은 도난 정보에 대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직 주지 스님을 대상으로 통합종단이 출범한 1962년 이후 발생된 도난 건에 대해서도 파악 후 보

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성보보존법 제5조 1항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정보이며 기간은 오는 9월13일까지 3개월간이다. 총무원은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한 경우는 선처리 예정이며,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위배된 사항이 드러날 경우 중벌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성보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성보보존법에 따르면 사찰 주지 스님은 성보 관리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성

문화·호법부, 최근 9점 회수
통합종단 이후 발생 건 대상

보의 발견, 멸실, 도난, 훼손에 관한 사항을 총무원장 스님의 승인을 얻고 보고하며,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blind19@buddhism.or.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에는 명칭, 경위, 사진, 규격 등 관련 정보를 기입하게 돼 있다. 접수된 자료들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총무원 문화부는 최근 서울의 한 고미술품 경매사와 사립박물관 등으로부터 7점의 도난 성보를 회수한데 이어, 추가로 2점을 더 확

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한 문화재는 1993년 7월까지 예산 수석사에 있었던 ‘지장시왕도’와 2001년 6월19일 도난당한 순천 송광사의 ‘지장시왕도’이다. 이 작품들은 도난 신고는 돼 있었지만 개인 소유로 넘어가면서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난 문화재 4점이 고미술품 경매 시장에 나온 5월29일 이후 경찰과 문화재청의 수사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작품에 대한 보관처 정보를 입수, 지난 3일 최종 회수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사부대중께 감사 드립니다.

3년 전, 천년고찰 정방사 주지로 부임하고 보니 소중한 문화유산인 관세음보살상과 나한, 독성탱화를 함께 도난당한 아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충북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관세음보살상은 조선 숙종 15년(1689년)에 조성돼 법당에 주불로 모셔진 이후, 오랫동안 월악산과 청풍명월을 내려다보며 중생들의 애환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을 접하면서 많은 불자들은 환희심에 기도를 올렸고, 정방사를 참배하시는 불자님과 금수산 등반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에 범당문이 뜯기고, 관세음보살상과 나한, 독성탱화를 도난 당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정방사를

찾는 불자님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소송도 부임 이후 매일같이 조석기도를 통해 관세음보살상과 나한 독성(탱화)님이 하루속히 환귀본처하시기를 발원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경매장에 관세음보살상이 나왔습니다. 자칫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다행히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박물관 직원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또한 문화재청, 검찰, 경찰의 발 빠른 수사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방사 주지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근본적인 힘은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뛰어난

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문화민족은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력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와 당당히 겨룰 자산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의 문화유산이 우리 민족 모두의 문화유산임을 알고, 앞으로도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국민이 소중하게 보호해주며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관세음보살상과 나한 독성탱화가 정방사로 돌아 오시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총무원 문화부 불교박물관 문화재청 검찰 경찰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558년 6월

제천 정방사 주지 상인 합장

